

# 지학순 주교의 ‘통합적 인간 발전’의 실천

이 동 화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 교리 교수)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가톨릭 사회 문헌에서의 통합적 인간 발전
- III. 지학순 주교의 삶에서 드러나는 통합적 인간 발전
- IV. 나가는 말

##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가톨릭 사회 교리의 관점에서 지학순 주교의 사회적 실천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사회 교리의 핵심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개념인 ‘통합적 인간 발전’ 개념을 해석 틀로 삼는다. 이 개념은 경제적 성장을 발전으로 여기는 개발주의 모델을 비판하며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참다운 발전은 인간을 위한 발전, 곧 전인적이고도 모든 이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 영성 등 인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여러 영역에서 고찰해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이 제시하는 대로 인간 발전을 경제적으로는 참여적 경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강화로 개념화시켜 파악한다. 더 나아가서 통합적 인간 발전은 인간과 사회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적 인간 발전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에서 드러나는 통합적

\* 편집자 주: 본고는 지학순 주교 선종 25주기 기념 심포지엄(2018.11.7)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생태론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 틀을 바탕으로 지학순 주교의 사회적 실천을 참여적 경제, 민주주의의 강화 그리고 생태론의 영역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지학순 주교는 경제적 영역에서 특별히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참여적 경제를 실천했다. 둘째, 그는 여러 정치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공동선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신했고, 그의 투신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인간의 위기를 생태론과 연관해서 해결하도록 고민하였고, 그의 후원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천적 생태주의 운동이 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지학순 주교는 모든 이들의 참다운 발전을 위하여 투신한 사목자였고, 그의 사회적 실천은 가톨릭 사회 교리의 통합적 인간 발전에 부합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지학순 주교, 가톨릭 사회 교리, 통합적 인간 발전, 통합적 생태론, 신용협동조합운동

## I. 들어가는 말

1974년 7월 23일 지학순 주교는 ‘유신 헌법은 진리에 반대되고 민주 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여 조작된 것이기에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다. 이후 지학순 주교 구속 사건에 대처하는 전국의 많은 사제들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결성하였고, 사제들의 이러한 정치적 동원은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만이 아니라 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계속 이어졌다.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그것으로 결성된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하나의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한 종교의 성직자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치에 동원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동원이 정치와 종교 또는 국가와 교회의 갈등 관계의 중심에 있음으로써 양측

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형성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일종의 전환이 되는 사건이었다.

한국 천주교회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전환을 이루게 된다. 여러 차례의 혹독한 박해와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었던 한국 천주교회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과 활동에 대해 자각하고 새롭게 성찰하게 되었다. 물론 신학적 측면에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현실 참여가 공의회의 정신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환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과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지학순 주교에 대한 연구는 그의 정치 참여와 그 의미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면 조현철은 지학순 주교의 삶과 현실 참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더욱 근원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라는 신학적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조현철은 지 주교의 삶에서 드러나는 공의회 정신과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로 교회의 현실 참여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한다.<sup>1)</sup> 황종열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하느님의 집안 살이’ 곧 하느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파악한다. 그는 지학순 주교의 삶과 활동을 재구성하며, 지 주교는 교구 사목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집안 살이를 철저하게 육화시킨 선구자로 이해한다.<sup>2)</sup> 이러한 연구들이 지학순 주교의 삶과 사상을 훌륭하게 재해석, 재구성하고 있지만 사회적 실천을 좀 더 명확하게 개념화시키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이 지학순 주교의

1) 조현철,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 지학순 주교의 삶을 통해 본 교회의 현실 참여의 정당성의 근거”, 『神學思想』 166, 2014, 63-101 참조.

2) 황종열, 『한국 가톨릭 교회의 하느님의 집안 살이』, 가톨릭사상총서 8,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182 이하 참조.

삶을 정치적 영역을 중심으로 바라봄으로써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학순 주교의 삶과 사목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실천을 가톨릭 사회 교리의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의 사회적 실천은 무엇이었고 그 근거와 지향점이 무엇인지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학순 주교의 사회적 실천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개념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통합적 인간 발전’(Integral Human Development)<sup>3)</sup>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통합적 인간 발전은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에 자의 교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sup>4)</sup>을 발표하여 기존의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사회복지평의회, 이주사목평의회, 보건의사목평의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부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Dicasterium ad Integram Humanam Progressionem fovendam)를 설립하였다. 이는 통합적 인간 발전 개념이 교회의 사회 활동 및 사회 사목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먼저 가톨릭 사회 교리의 통합적 인간 발전 개념을 이해하고, 통합적 인간 발전의 관점에서 경제, 정치, 생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학순 주교의 활동을 해석하고자 한다.

- 
- 3) 일반적으로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Integral Human Development’는 ‘온전한 인간 발전’이라고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개념이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포괄하여 통합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통합적 인간 발전’이라고 정의한다.
  - 4)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인간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cbck.or.kr/book/book\\_list.asp?p\\_code=k5150&seq=402583&page=1&KPope=&KBunryu=자의교서&key=Title&kword=\(검색일: 2019.2.14\).](http://www.cbck.or.kr/book/book_list.asp?p_code=k5150&seq=402583&page=1&KPope=&KBunryu=자의교서&key=Title&kword=(검색일: 2019.2.14).)

## II. 가톨릭 사회 문헌에서의 통합적 인간 발전

### 1. 참다운 인간 발전

가톨릭 사회 교리의 ‘발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과학 기술의 진보와 경제 발전을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미국에서의 엄청난 생산성의 증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모든 민족들은 미국과 같은 경제 성장을 갈망하게 되었고, 발전은 곧 경제적 성장을 뜻하게 되었다. ‘개발(발전)주의’ 또는 ‘근대화 모델’로 알려진 이 관점에 의하면 저개발은 자본의 결핍에 의한 것으로서 저개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유입으로 기술을 향상시키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1960년대 중반까지 지배적이었으나, 이후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중속 이론’이 나오면서 이 모델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개발 도상국 또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등의 선진국 자본 유입은 국가 간 중속 관계를 만들고, 저개발 국가 내에서도 지배 엘리트와 피지배 민중의 중속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가톨릭 사회 교리의 발전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목 헌장』에서 경제 발전은 인간에 대한 봉사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후의 인간 발전 개념의 토대를 놓았다.<sup>6)</sup> 본격적으로 바오로 6세의 1967년 회칙 『민족들의 발전』은 발전에 관한 가톨릭 사회 교리의 대헌장<sup>7)</sup>이라고 불리며, 이후의 발전에 관한 회칙들, 곧 요한 바오로 2세의 『사회적

5) M.H. Snyder, “Development”, *The New Dictionary of Catholic Social Thought*, ed. Judith A. Dwyer,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4, 278-279 참조.

6) 『사목 헌장』 64항 참조.

7) A.F. Deck, “Commentary on *Populorum Progressio*”, *Modern Catholic Social Teaching: Commentaries and Interpretations*, ed. Kenneth R. Hime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5, 292 참조.

관심』과 베네딕토 16세의 『진리 안의 사랑』이 따르는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회칙 『민족들의 발전』은 이른바 개발주의 또는 근대화 모델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곧 “발전은 경제적 성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의 발전 향상이 전체적인 것”<sup>8)</sup>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성장이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대가로 인간의 문화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인권과 정의가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참다운 발전은 전인적(the whole of humanity)인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모든 이(the each man and the each group)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및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이상, 인간 발전은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integral)인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참다운 발전은 또한 통합적인 발전이다.

이처럼 바오로 6세 교황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당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인간을 위한 발전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사실 『민족들의 발전』을 비롯해서 『사회적 관심』에 이르기까지 어느 문헌도 통합적 인간 발전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의 상황 안에서 참다운 발전을 형성해 나갈 해석틀 또는 발견적 개념(heuristic notion)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sup>9)</sup> 따라서 통합적 인간 발전을 좀 더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통합적 인간 발전이 인간을 위한 것인 한, 인간다운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바오로 6세 교황이 제시하는 인간다운 조건은 무엇보다 먼저 빈곤에서의 해방과 물질 재화의 획득, 사회악의 제거,

8)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14항.

9) Donal Dorr, “Solidarity and Integral Human Development”, *The Logic of Solidarity: Commentaries on Pope John Paul II's Encyclical “On Social Concern”*, eds. Gregory Baum, Robert Ellsberg, New York: Orbis Books, 1989, 144 참조.

정신적 문화의 획득이다. 그다음으로는 인권의 존중, 공동선 그리고 평화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더욱 인간적인 조건은 하느님의 선물인 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들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다시 말해서 통합적 인간 발전이 추구하는 발전의 단계는 첫째, 경제적 빈곤에서의 해방과 정치적 억압에서의 해방, 둘째, 인권과 공동선, 평화의 추구이며, 마지막으로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가치에 대한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발전의 단계에서 드러나듯이 통합적 인간 발전을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sup>11)</sup> 베네딕토 16세는 『진리 안의 사랑』에서 『민족들의 발전』을 언급하며 여러 측면에서 발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발전이란 모든 이들이 경제 과정에 평등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정치적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연대성을 기초로 한 사회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12)</sup> 이런 바탕 위에서 통합적 인간 발전의 개념화를 시도한다면 첫째, 참여적 경제, 둘째,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 셋째,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 영역의 참여적 경제와 정치 영역의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먼저 참여적 경제란 전통적인 경제 정의와 관련해서 보자면 공헌적 정의(contributory justice)를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의 복지에 공헌하고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 이는 한편으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재화를 사회를 위해 공헌해야 할 의무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의 복지와 의사 결정 그리고 물질적 소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10) 『민족들의 발전』 21항 참조.

11) Denis Goulet, "The Search for Authentic Development", *The Logic of Solidarity: Commentaries on Pope John Paul II's Encyclical "On Social Concern"*, 131, 134-135 참조.

12)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21항 참조.

야 하는 공동체의 의무를 뜻한다. 이는 빈곤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더욱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제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경제 민주주의의 개념을 내포한다.<sup>13)</sup> 그러나 이 경우,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주된 행위자는 국가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베네딕토 16세의 통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족들의 발전』 반포 40주년을 맞이하여 반포된 『진리 안의 사랑』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40년 전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를 비교한다. 4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은 세계화로 인해 “경제 활동은 더 이상 한정된 지역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정부의 권위는 대개 그 지역에 한정”<sup>14)</sup>되어 국민 국가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국가의 관계가 달라졌다. 곧 시장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극대화시키고, 국가가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모델이 상당히 해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 사회’라는 새로운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은 시민 사회 안에서 ‘이윤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등가 교환 논리나 이윤 자체가 목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숭고한 목적을 지닌 그러한 유형의 경제 활동에 형태와 구조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며 따라서 ‘상호 부조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이 뿌리내리고 발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sup>15)</sup>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오늘날 시장-국가의 역할을 볼 때 시장 바깥에서의 경제 활동과 기업의 역할이 통합적 인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적 경제는 일차적으로는 빈곤에서의 해방을,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이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이러한 경제를 시장 바깥의 협동조합,

13) 이동화,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전망”, 『가톨릭신학』 32, 2018, 144 참조.

14) 『진리 안의 사랑』 37항.

15) 『진리 안의 사랑』 38항 참조.

사회적 기업, 윤리적 투자 등의 제3부문 경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의 발전은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보다 먼저 억압에서의 해방을 뜻한다. 제3세계,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빈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정치적 억압이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 바오로 6세는 해방 신학자들<sup>16)</sup>과 남미 주교들의 관점을 수용하여 그리스도교적 발전은 과거 정치적 식민주의 그리고 당시의 경제적, 문화적 신식민주주의의 정치적 억압에서의 해방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7)</sup>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란 단순히 정치적 억압에서의 해방이나 선거 제도와 같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추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절차적 조건 위에서 그 사회의 도덕적·사회적·문화적 가치들을 발전시킬 때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 존중, 정치 생활의 목적이며 통치 기준인 공동선에 대한 투신과 같이 민주주의 발전에 영감을 주는 가치들을 확신 있게 수용한 열매”<sup>18)</sup>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바오로 6세가 발전의 단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권과 공동선, 평화의 추구는 민주주의 체제 강화의 필수적 요소이며, 바로 이런 가치들에 대한 추구가 통합적 인간 발전의 내용이기도 하다.

## 2. 통합적 인간 발전으로서 통합 생태론

통합적 인간 발전이란 경제 영역에서는 참여적 경제의 증진, 정치적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의 영역 외에도 고려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생태와

16) G. 구티에레즈, 『해방신학: 역사와 정치와 구원』, 성명 역, 분도출판사, 1977, 특히 39-66 참조.

17)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30-31항 참조.

18)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407항.

환경의 영역이다.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의 진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개발주의 아래에서의 발전 또는 개발이 역설적이게도 자연과 환경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비인간적 저개발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보호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sup>19)</sup> 이런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 사용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러한 방식의 결과들은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적 인간 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은 자연 환경과 맺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최초의 생태 회칙이라 불리는 『찬미받으소서』에서 그는 자연 보호와 경제적 수익의 균형, 또는 환경 보존과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의 개념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sup>20)</sup>

그리스도교적 발전은 인간 생존의 총체적 관계성을 뜻하는 인간 생태계, 사회 제도의 총체적 관계성을 뜻하는 사회 생태계 그리고 환경 생태계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생태론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sup>21)</sup>과 우리가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sup>22)</sup>해 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기에는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는 과학 기술의 잘못된 사용과 더불어 과학 기술과 특정 권력 집단의 결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과학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sup>23)</sup> 이것이 바로 기술-경제 사고방식(techno-economic paradigm) 또는 기술 관료적 사고방

19) Denis Goulet, 앞의 책, 135 참조.

20)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94항 참조.

21) 『찬미받으소서』 138항.

22) 『찬미받으소서』 139항.

23) 『찬미받으소서』 107항 참조.

식(technocratic paradigm)<sup>24)</sup>이며, 이는 근본적으로는 인간 중심주의 (anthropocentrism)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환경을 경제적 효율의 관점으로 도구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만연한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과 인간의 무한한 힘의 숭배와 더불어, 즉각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상대주의”<sup>25)</sup>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참다운 인간 발전은 인간·사회·환경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며, 동시에 생태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발전의 경계와 한계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sup>26)</sup>

이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생태적 회개를 제안한다.<sup>27)</sup>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회개, 피조물과 맺는 건전한 관계 그리고 개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내적 변화 모두를 포함한다.

### Ⅲ. 지학순 주교의 삶에서 드러나는 통합적 인간 발전

통합적 인간 발전 개념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이는 인간의 물질적인 조건에서부터 문화적·도덕적·영적 영역에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지학순 주교의 사회적 실천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생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참여적 경제,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 그리고 통합적 생태론의 관점에서 지학순 주교의 사회적 실천을 살펴보고, 동시에 지 주교의 실천이 통합적 인간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24) 『찬미받으소서』 106-114항 참조.

25) 『찬미받으소서』 122항.

26) Reinhard Marx, “‘Everything is connected’: On the Relevance of an Integral Understanding of Reality in *Laudato Si*”, *Theological Studies* 77, 2016, 301 참조.

27) 『찬미받으소서』 216-220항 참조.

살펴볼 것이다.

## 1. 참여적 경제

1965년 원주교구가 춘천교구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고 초대 교구장으로 지학순 주교가 착좌하였다. 교구 초창기에 교구장으로서 지학순 주교의 주된 관심은 교구의 경제적 자립과 가난한 지역민들에 대한 빈곤 대책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농가는 고질적인 고리채에 시달렸다. 예를 들면 1961년 농가의 사채 의존율은 68.9%였고 이후 계속 상승하여 1971년에는 74%로 악화되었다.<sup>28)</sup> 그러나 지학순 주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대책이 구호물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구호물자는 가난한 이들의 정신적 퇴폐를 초래할 수도 있고,<sup>29)</sup> ‘결인 근성’을 심어줄 수도 있으며 교회 안에서는 ‘가짜 신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30)</sup>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지학순 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운동 특히 신용협동조합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해방 이후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운동은 가톨릭 교회 안의 신용협동조합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1960년 메리놀 수녀회의 메리 가브리엘라(Mary Gabriella Mulherin, 1900-1993) 수녀가 부산에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곧이어 서울에서 장대익 신부가 ‘가톨릭중앙신협’을 설립했다. 가브리엘라 수녀는 1963년 서울로 옮겨 ‘협동교육연구원’을 설립하였다. 협동교육연구원은 신협 조합원 교육과 신협 설립 교육을 통하여 초창기 신협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sup>31)</sup>

28) 방성찬·이승일, “1960-70년대 원주지역의 신협운동: 진광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신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65, 2017, 34 참조.

29) 황종열, 앞의 책, 189 참조.

30) 지학순, “1973년도 사목세부지침: 과제를 연구하고 전면적 협동활동을 준비하자”,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 말씀: 바위틈에 피어난 꽃순과 같은 원주교구』, 천주교 원주교구 편, 2003, 83 참조.

31) 이경란, “한국 근현대 협동운동의 역사와 생활협동조합”, 『역사비평』 102, 2013, 56 참조.

이러한 영향 아래, 교구 초창기에 지학순 주교는 신용협동조합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는 1966년 11월에 원동 성당 신자들과 함께 원주신협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 부족과 경영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원주신협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하여 1969년 1월 원주 가톨릭센터에서 조합원 및 임원 강습회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학순 주교는 진광중·고등학교 부설 협동교육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협동교육연구소는 원주 지역에서 성인 교육과 더불어 신협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교육을 전개하였고, 1970년에는 진광중·고등학교 내에 진광신협이 설립되었다. 지학순 주교가 설립한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신협은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러 신협이 설립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신협은 이후 강원 지역의 신협운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지학순 주교의 사회적 활동은 1972년 남한강 유역의 대홍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 홍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특히 제천, 단양 및 그 인접 지역을 집중적으로 쓸어버렸고, 이재민 14만 5천 명, 농경지 피해 2만 정보(약 200km<sup>2</sup>), 주택 피해 2만 3천 동 등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지학순 주교는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원조 기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미제레올(Misereor: 독일 가톨릭개발원조기구)과 유럽 카리타스(Caritas Europa)를 통해 당시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원주교구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1979년에 사회개발위원회로, 그 이후에는 사회사업국(1983년), 사회선교국(1990년) 그리고 사회복지회로 개편되어 원주교구의 사회 복지 기구로 발전하였다.

당시 지학순 주교는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천주교의 범위를 벗어나 정부 기관 및 사회 기관의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는 제3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그 밑에 실무적인 일을 하는 집행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부락 내에서도 협동 조직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락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sup>32)</sup>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대책사업 첫 단계는 긴급 구호에 집중되었고, 2단계는 전담 복구 및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집중되었으며, 3단계부터는 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신탁과 소비조합 그리고 농민과 광산 노동자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으로 발전되었다. 이처럼 긴급한 구호에 먼저 집중하고, 그다음으로는 지역 주민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조합운동을 도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하였다. 지 주교는 ‘1973년도 사목지침’에서 광산 노동자, 농민, 소도시 빈민 등을 위한 협동 조직을 건설하도록 강조하였고<sup>33)</sup>, ‘1973년도 세부사목지침’으로 재해 대책 사업에 대한 교회의 원칙적 태도를 밝혔다.<sup>34)</sup> 그것은 사업의 전개와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가지는 ‘구별의 원칙’과 사업을 지원하고 활동의 주체로서 헌신하는 ‘관련의 원칙’이었다. 이런 원칙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히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반대로 사업에서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풀어 가도록 하며, 협동 조직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지학순 주교의 통찰과 헌신에 의해 시작된 협동 조직 운동은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12년 한 해 동안 협동조합운동을 배우기 위해 원주를 방문한 사람은 92개 단체 2,760명으로, 개별 방문까지 합치면 5,000여 명에

32) 김소남,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광산지역 장기구호사업 연구: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58, 2012, 394 참조.

33) 지학순, “1973년도 사목지침: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 말씀: 바위틈에 피어난 꽃순과 같은 원주교구』, 72-73 참조.

34) 지학순, “1973년도 사목세부지침: 과제를 연구하고 전면적 협동활동을 준비하자”,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 말씀: 바위틈에 피어난 꽃순과 같은 원주교구』, 84 참조.

이른다.<sup>35)</sup> 그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그 회원이 모두 3만 5천여 명으로 원주시 인구의 11%에 이른다.<sup>36)</sup>

이처럼 원주 지역이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의 주목할 모범이 된 것은 지학순 주교와 그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 덕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다양한 교육 운동 덕분이었다.<sup>37)</sup> 초창기 가브리엘라 수녀와 정대익 신부의 협동 교육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지학순 주교의 협동 교육 연구소와 재해 대책 사업 위원회의 협동 조직 사업 역시 캐나다의 안티고니쉬 지역의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 1919년 대공황 이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던 안티고니쉬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극복하고자 그 지역의 세인트 프랜시스 사비어 대학(St. Francis Xavier University)을 중심으로 주민의 의식화 교육과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sup>38)</sup> 원주의 지역 주민 교육과 협동조합운동은 이 운동의 사상과 실천에 기반을 두어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민 교육과 신탁운동은 지역 안에서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 당시 유신체제 아래에서 관(官) 주도의 새마을 운동과 관제 농협을 중심으로 부락 단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했지만, 농민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 개발 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마을의 권력 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sup>39)</sup>

이처럼 지학순 주교가 주도한 협동조직운동은 지역 주민들의 빈

35) 정규호, “도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네트워크의 역할”, 『정신문화연구』 36, 2013, 15 참조.

36) 정재돈,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협동조합운동의 전망”, 『사목정보』 12, 2012, 107 참조.

37) 신명호·이아름, “원주 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의 효용”, 『정신문화연구』 36, 2013, 40 참조.

38) 김소남,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농촌신탁운동 연구”, 『동방학지』 166, 2014, 329 참조.

39) 같은 책, 354 참조.

곤에 대응하면서도, 시혜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깨닫도록 의식화 교육과 함께 진행하였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경제 과정에 평등하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지학순 주교의 협동조합운동은 참여적 경제의 좋은 모범이면서 통합적 인간 발전을 위한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학순 주교와 그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 특히 장일순, 김지하, 김영주 등 이른바 ‘원주캠프’<sup>40)</sup>는 이후 이 지역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한국의 실천적인 생태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다.

## 2.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

협동조합운동에서 보았듯이 지학순 주교의 가장 중요한 사목적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지학순 주교는 세상의 기존 규범의 눈으로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sup>41)</sup> 그 특별한 위치는 인식론적 차원에도 해당한다. 가난한 이들은 세상의 죄와 악을 식별하는 인식론적 특권을 가진 것이다.<sup>42)</sup>

1970년 이른바 ‘뽕땅 사건’은 지학순 주교의 인식론적 특권을 분

40) 1960-1970년대 반박정희 정권 운동을 전개하면서 형성된 원주 지역 활동가들을 1980년대 외부에서 ‘원주캠프’라고 불렀다. 김소남은 원주캠프를 원주교구 설정 후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모여든 이들, 곧 장일순, 김지하, 박재일 등을 1차 원주 그룹이라고 부르고, 이후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모여든 이들을 2차 원주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소남, “1970-80년대 원주그룹의 생명운동 연구”, 『동방학지』 178, 2017, 175 참조.

41)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97항 참조.

42) 제3차 라틴아메리카 주교단 총회(1979), 『푸에블라 문헌: 라틴아메리카 현재와 미래의 복음화』, 성찬성 역, 분도출판사, 1991, 132항 참조.

명하게 보여 준다. 버스 여차장의 ‘뽕땅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지학순 주교는 ‘뽕땅은 죄가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이는 이후에 TV강연을 비롯한 여러 강연에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지학순 주교는 “하루에 3, 4백원의 뽕땅을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기업주들의 운영 불합리에서 나오는 책임을 여차장들이 질 수는 없다. 주는 만큼 받아야 하고, 받는 만큼 주어야 하는 교환 정의에서 볼 때도, 모든 사람의 공공 복리를 공정하게 다뤄야 하는 법적 정의에서도, 누구나 살 권리가 있는 사회정의에서도 뽕땅은 죄악이 아니다”<sup>43)</sup>라고 하였다. ‘뽕땅 사건’ 외에도 지 주교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총재 주교로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고, 1973년에는 노동자들의 교육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신·구교 연합 한국노동교육협의회를 조직하여 노동자 교육에도 앞장섰다.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이 훼손당하며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었다. 온갖 부정과 부패가 사회를 뒤덮고 있었다.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선 지학순 주교가 사회의 부정부패에 도전하고, 기존 정치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1970년 지학순 주교는 원주 문화방송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와 지역 사회 언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5·16장학회의 부정부패와 횡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단지 원주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1971년 10월 지학순 주교는 주교좌 원동 성당에서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한 후 ‘부정부패 뿌리 뽑자’, ‘사회 정의 이룩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그해 성탄절에 발표된 ‘1971년 성탄절 및 1972년도 사목교서’에서 잘 드러나듯이, 지학순 주교는 한국 사회의 위기의 원인이 당시 정권의 정보 통치, 부정부패 특권, 외세 의존에 있다고 분석한다.<sup>44)</sup>

43) 지학순정의평화기금, 『그이는 나무를 심었다』, 공동선, 2000, 102.

그리하여 정권의 정보 통치를 종식시켜 국민의 자유권을 쟁취하고, 부정부패 특권을 척결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쟁취하며, 외세 의존을 단절하여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구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특별 미사는 한편으로는 지학순 주교의 이후 활동이 반정부 투쟁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특별 미사 이후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는 제목으로 ‘전국 가톨릭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형제들에게 보내는 한국천주교 주교단 공동교서’(1971.11.14)가 발표되었다.<sup>45)</sup> 이 공동 교서는 분배 정의와 공동선의 실현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확인하며, 그리스도인과 선의의 국민들이 올바른 사회 건설에 헌신할 것을 촉구했다.

이 특별 미사는 그동안 한국 사회 안에서 억눌려 왔던 박정희 정권 반대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2월 6일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12월 27일에는 ‘국가 보위에 관한 특례 조치법’을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듬해인 1972년 1월에는 한국 주교단의 공동 선언과 김수환 추기경의 시국 메시지 등이 뒤를 이었으나, 그해 11월 유신 헌법이 국민 투표로 확정되었다. 전국에서 유신 헌법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민청학련)과 이에 관계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강압적인 조치로 관련자를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것이었다.

1974년 7월 6일 지학순 주교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하는 즉시 김포 공항에서 긴급 조치 1호와 4호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이후 교황 대사와 김수환 추기경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연

44) 지학순, “1971년 성탄절 및 1972년도 사목교서”,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 말씀: 바위틈에 피어난 꽃순과 같은 원주교구』, 34-35 참조.

45)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역사와 증언”, 『宗教神學研究』 1, 서강대 종교신학연구소 편, 분도출판사, 1988, 269-270 참조.

금 상태에 있던 지 주교는 7월 23일 유신헌법은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국민 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해 조작된 것이기에 무효’이며, 따라서 ‘양심과 하느님의 정의가 허용치 않으므로 소환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양심 선언<sup>46)</sup>을 내외신 기자와 신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시 구속되었다.

지 주교의 양심 선언과 구속은 한국 천주교회의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지학순 주교 구속 이후 각 교구에서 여러 사제들의 주관으로 기도회가 계속되었다. 대전교구(1974.8.5), 인천교구(8.26), 지 주교의 옥중 메시지가 공표된 서울 명동 성당 기도회(9.11, 9.22)를 거쳐 9월 23일 원주에는 300여 명의 사제들이 참석하였고, 여기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라는 명칭의 사제단 결성을 합의하였다.<sup>47)</sup> 이렇게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결성은 한국 천주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톨릭 교회의 정의 평화 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지학순 주교의 양심 선언과 구속은 한국 사회와 정치를 향해 던지는 예언적 외침이자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었다.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 온 그는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불의를 목도하였고, 공동선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특수선(特殊善)을 추구하는 국가 권력에 대면하였다. 지 주교의 정치적 결단과 실천 그리고 그로 인한 핍박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정치적 민주화,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위한 것이었다. 지학순 주교의 저항과 투옥은 정치 영역에서의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자기 헌신이었다.

46) 지학순, “양심 선언”,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 말씀: 바위틈에 피어난 꽃순과 같은 원주교구』, 367 참조.

47) 함세웅, 앞의 책, 273-274 참조.

### 3. 통합적 생태론

지학순 주교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고,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경제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동시에 사회적 불의와 부패에 대해 싸웠으며,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의 부당한 구속과 그것을 계기로 결성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한국 현대사와 한국 교회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그는 경제적 영역에서도 정치적 영역에서도 통합적이고 참된 인간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통찰을 던져주었다. 더 나아가서, 지학순 주교는 한국에서 실천적 생태·생명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었다.<sup>48)</sup>

지학순 주교는 남한강 대홍수로 시작된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1979년에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로 개편하여, 70년대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고민하게 하였다.

사회개발위원회의 성찰과 고민은, 첫째, 일면 소모적이기도 한 반독재운동에 대한 성찰, 둘째, 대량 생산·대량 소비에 기반한 산업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근본적 회의, 셋째, 농약과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불균형에 대한 각성과 자연 농법에 대한 주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장일순, 김지하, 박재일이 기획한 ‘생명사상세미나’<sup>49)</sup>를 통해 동학사상을 비롯해 제3세계의 다양한 생명 사상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고민의 결실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산’이라는 제목의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생명

48) 한면희, “한국 생태주의의 흐름과 현황”, 『문화과학』 56, 2008, 160 참조. 한면희는 한국에서 이론적·이념적 생태주의는 전통 사상과 결부되어 김지하의 생명 사상, 장회익의 온생명론 그리고 한면희 자신의 기-생태주의 철학으로 정립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실천적 생태주의의 시작은 ‘한살림운동’으로 보고 있다.

49) 김소남, “1970-80년대 원주그룹의 생명운동 연구”, 180 참조. 이 세미나에는 황인성, 나상기, 제정구, 정호경 등이 참여하였다.

공동체라는 자각과 인간 정신의 근원으로서의 영성에 대한 자각으로 모든 생명계의 협동적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후 원주캠프와 사회개발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고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농촌에서의 유기 농업 운동과 도시의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사상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와 더불어 신과학 운동 및 유럽 녹색 운동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유기농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도농 직거래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한살림운동’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가톨릭농민회는 1976년 당시 전주교구 익산 황등 분회장의 죽음 이후 농약의 위협성을 깨닫고 효소 농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농 운동을 모색해 가고 있었다.<sup>50)</sup> 여기에 더해, 1982년 생명 사상 세미나의 참여자인 박재일과 정호경 신부가 농민회 회장과 지도신부로 각각 선임되면서 농민 운동의 방향을 생명운동으로 새롭게 모색하게 된다. 농민회 내부에서 사회개발위원회의 보고서가 회람되고 더욱 깊이 공부되었고<sup>51)</sup>,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권익 투쟁 일변도의 운동 방식에 대한 반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학습과 반성으로 ‘삶’ 중심의 농민 운동이 활발해졌다. 농민들의 여러 조합과 농협의 민주화, 신용협동조합운동의 확산 그리고 심각한 농약 공해와 비료 남용으로 죽어 가는 땅과 농민을 지키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함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효소 농법과 유기 농법 등 자연 농법의 보급과 실천 등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전환은 삶의 공동체(생활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이며 동시에 훗날 생명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52)</sup> 특히 이 시기에 정호경 신부는 생명 사상에 기초하여 가톨릭농민운동의 이론적

50) 같은 책, 190 참조.

51) 같은 책, 191 참조.

52)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한국가톨릭농민회, 1999, 104-105 참조.

기반을 갖추어 나갔고<sup>53)</sup>, 이러한 작업들은 신학의 토착화 모델로 소개되기도 했다.<sup>54)</sup>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 가톨릭농민회 역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면서 생활 공동체 운동을 더욱 심화시키기는 어려웠지만, 1990년에 들어 그동안의 생활 공동체 운동을 바탕으로 생명 공동체 운동을 본격적으로 주창하였다. 1990년에 새로운 농민운동 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출범하면서, 가톨릭농민회는 본격적으로 생명 공동체 운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가톨릭농민회는 농업이야말로 생명의 순환 질서에 의해 유기적, 전일적, 공생적 세계관으로 현대 물질문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가 공존하는 사회를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가톨릭농민회는 도시와 농촌에 소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며, 유기 자연 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sup>55)</sup>

가톨릭농민회가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생명 운동을 전개해나갔다고 한다면, 한살림운동은 소비자 조합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다. 한살림운동 초기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주로 서울 지역의 성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지학순 주교와 최기식 신부, 장일순이 서울 지역의 성당에서 생명운동과 농산물 직거래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론과 강의를 통해 설득해 나가면서 점차 확산되었다.<sup>56)</sup> 초창기 한살림운동은 지학순 주교의 지지와 지원 아래 전개되어 나갔으나, 이후 한살림운동 안의 ‘한살림모임’을 중심으로 신과학 운동, 녹색 운동, 동학사상의 생태적 전망들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독자적인 길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53)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 정호경,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농민사목』, 분도출판사, 1984; 농민교리서 편찬위원회, 『해방하시는 하느님: 농민공동체의 교리서』, 분도출판사, 1987; 정호경,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분도출판사, 1994.

54) 서남동, “<농민사목>을 읽고”,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농민사목』, 7-11 참조.

55) 김승우, “가톨릭 농민회와 생명 공동체 운동”, 『가톨릭신학과사상』 9, 1993, 160-161 참조.

56) 김소남, “1970-80년대 원주그룹의 생명운동 연구”, 195 참조.

한국가톨릭농민회와 한살림운동이 생명 공동체 운동을 표방하며 유기 농산물의 직거래 운동을 전개시켜 나간 것은 1990년을 전후해서이지만, 이 운동이 본격적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와 과정이 필요했다. 지학순 주교는 이러한 이전 단계와 과정에 관여하고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가톨릭농민회는 지학순 주교가 총재로 있었던 인성회의 여러 지원을 받았고<sup>57)</sup>, 한살림운동 역시 초창기에 지 주교의 후원 아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지학순 주교는 한국의 실천적 생명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선각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학순 주교와 그의 동료들의 생태적 자각은 무엇보다 먼저 현대 물질문명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파괴적 현상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 자각에서 농업과 생명에 기초한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르치는 통합적 생태론과 생태적 회개를 지향하는 실천적 사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IV. 나가는 말

지학순 주교의 사회적 실천은 통합적 인간 발전을 위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 인간 발전은 가톨릭 사회 교리의 핵심 내용을 담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 발전은 경제나 과학 기술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을 위한 발전이어야 하며, 동시에 다양한 영역의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치·생태 영역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참다운 발전은 빈곤에서의 해방과 경제의 모든 과정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참여적 경제를 수립하는 것이라

57) 한국가톨릭농민회, 앞의 책, 126 참조.

고 볼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 참다운 발전은 정치적 억압에서의 해방과 인간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 인간 발전은 발전과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피조물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피조 세계를 기술과 경제의 관점으로 도구화시키는 인간 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생태적 회개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적 인간 발전은 통합적 생태론과 다르지 않다.

지학순 주교는 교구 초창기에 협동조합운동에 매진하였다. 그것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빈곤에서 해방되도록 도왔다. 지역 주민이 물질적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시민적 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했다. 이러한 지주교의 영향으로 오늘날 원주 지역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모범적인 도시가 되었다. 지주교의 협동조합운동은 경제 영역에서의 인간 발전을 위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가난한 이들의 자리에서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지학순 주교는 세상의 온갖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정권하의 불의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는 신자들과 함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그의 활동은 구속으로 이어졌지만, 한국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와 사제들의 저항으로 확산되었다. 그의 구속을 계기로 결성된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정의와 평화의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였다. 지학순 주교는 정치적 억압에서의 해방을 위해 싸웠고, 그 싸움을 공동선과 사회 정의 그리고 참다운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의 이러한 투쟁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한국 사회의 정의와 평화가 촉진되는 데 기여하였다. 곧 그의 정치적 활동은 정치 영역에서의 인간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지학순 주교는 자신의 동료들, 이른바 원주캠프와

더불어 사회개발위원회가 현대 물질문명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깊이 자각하고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톨릭농민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 공동체 운동과 생명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를 이어주는 한살림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처럼 지학순 주교의 사회적 실천의 내용과 그 방향은 철저하게 통합적 인간 발전에 맞추어져 있었다. 실제로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했던 주교였고, 여러 교황의 사회 회칙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개체로서의 인간, 전체로서의 인간, 곧 인간 자체”이며 “모든 발전적인 정치제도나 경제 발전도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sup>58)</sup>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그의 사회적 실천은 인간의 참다운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그의 자각과 실천은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만 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인간의 참다운 통합적 발전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한 사목자였다. 그가 설계하고 실행한 대안적 발전은 가톨릭 사회 교리의 통합적 인간 발전의 개념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sup>59)</sup>는 사목자였다. 그의 실천은 바로 그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 투 고 일: 2019. 2. 20  
수 정 일: 2019. 3. 7

심 사 일: 2019. 3. 4  
계재확정일: 2019. 3. 11

58) 지학순, “나는 왜 근로자를 외면하지 못하는가?”, 『정의가 강물처럼』, 형성사, 1983, 268.  
59) 『찬미받으소서』 49항.

## 참 고 문 헌

## 1. 교회 문헌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바오로 6세,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99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_\_\_\_\_,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현장』(*Gaudium et Spe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sup>3</sup>.

제3차 라틴아메리카 주교단 총회(1979), 『푸에블라 문헌: 라틴아메리카 현재와 미래의 복음화』, 성찬성 역, 분도출판사, 1991.

프란치스코, 자의 교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 2016), [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2583&page=1&KPope=&KBunryu=자의교서&key=Title&kword=\(검색일: 2019.2.14\)](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2583&page=1&KPope=&KBunryu=자의교서&key=Title&kword=(검색일: 2019.2.14)).

\_\_\_\_\_,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_\_\_\_\_,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2.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구티에레즈, G., 『해방신학: 역사와 정치와 구원』, 성염 역, 분도출판사, 1977.

김소남,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광산지역 장기구호사업 연구: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58, 2012, 387-441.

- \_\_\_\_\_,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농촌신협운동 연구”, 『동방학지』 166, 2014, 323-367.
- \_\_\_\_\_, “1970-80년대 원주그룹의 생명운동 연구”, 『동방학지』 178, 2017, 171-211.
- 김승오, “가톨릭 농민회와 생명 공동체 운동”, 『가톨릭신학과사상』 9, 1993, 157-175.
- 농민교리서 편찬위원회, 『해방하시는 하느님: 농민공동체의 교리서』, 분도출판사, 1987.
- 방성찬·이승일, “1960-70년대 원주지역의 신협운동: 진광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신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65, 2017, 29-63.
- 서남동, “<농민사목>을 읽고”,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농민사목』, 분도출판사, 1984.
- 신명호·이아름, “원주 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의 효용”, 『정신문화연구』 36, 2013, 31-58.
- 이경란, “한국 근현대 협동운동의 역사와 생활협동조합”, 『역사비평』 102, 2013, 40-71.
- 이동화,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전망”, 『가톨릭신학』 32, 2018, 127-166.
- 정규호, “도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네트워크의 역할”, 『정신문화연구』 36, 2013, 7-36.
- 정재돈,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협동조합운동의 전망”, 『사목정보』 12, 2012, 105-110.
- 정호경,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농민사목』, 분도출판사, 1984.
- \_\_\_\_\_,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분도출판사, 1994.
- 조현철,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 지학순 주교의 삶을 통해 본 교회의 현실 참여의 정당성의 근거”, 『神學思想』 166, 2014, 63-101.
- 지학순, “1973년도 사목세부지침: 과제를 연구하고 전면적 협동활동을 준비하자”,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 말씀: 바위틈에 피어난 꽃순과 같은 원주교구』, 천주교 원주교구 편, 2003.
- \_\_\_\_\_, “1973년도 사목지침: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자”,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 말씀: 바위틈에 피어난 꽃순과 같은 원주교구』, 천주교 원주교구 편, 2003.
- \_\_\_\_\_, “1971년도 성탄절 및 1972년도 사목교서”,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 말씀: 바위틈에 피어난 꽃순과 같은 원주교구』, 천주교 원

주교구 편, 2003.

\_\_\_\_\_, “양심 선언”,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 말씀: 바위틈에 피어난 꽃순과 같은 원주교구』, 천주교 원주교구 편, 2003.

\_\_\_\_\_, 『정의를 강물처럼』, 형성사, 1983.

지학순정의평화기금, 『그이는 나무를 심었다』, 공동선, 2000.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30년사』, 한국가톨릭농민회, 1999.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역사와 증언”, 『宗教神學研究』 1, 서강대 종교신학연구소 편, 분도출판사, 1988, 261-289.

한면희, “한국 생태주의의 흐름과 현황”, 『문화과학』 56, 2008, 149-163.

황종열, 『한국 가톨릭 교회의 하느님의 집안 살이』, 가톨릭사상총서 8,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Deck, A.F., “Commentary on *Populorum Progressio*”, *Modern Catholic Social Teaching: Commentaries and Interpretations*, ed. Himes, Kenneth R.,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5.

Dorr, Donal, “Solidarity and Integral Human Development”, *The Logic of Solidarity: Commentaries on Pope John Paul II's Encyclical “On Social Concern”*, eds. Baum, Gregory / Ellsberg, Robert, New York: Orbis Books, 1989.

Goulet, Denis, “The Search for Authentic Development”, *The Logic of Solidarity: Commentaries on Pope John Paul II's Encyclical “On Social Concern”*, eds. Baum, Gregory / Ellsberg, Robert, New York: Orbis Books, 1989.

Marx, Reinhard, “‘Everything is connected’: On the Relevance of an Integral Understanding of Reality in *Laudato Si*”, *Theological Studies* 77, 2016, 295-307.

Snyder, M.H., “Development”, *The New Dictionary of Catholic Social Thought*, ed. Dwyer, Judith A.,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4, 278-282.

---

## ‘Integral Human Development’ in the Actions of Bishop Tji Hak Soun

*Ri, Dong 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ocial actions of Bishop Tji Hak Soun in the viewpoint of Catholic Social Teaching. For this, the study employs a concept ‘integral human development’ as an interpretative framework, because this is a key and comprehensive concept of Catholic Social Teaching. This concept criticizes the developmentalist perspective that considers development as economic growth, and provides with a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e Christian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Christian viewpoint, the authentic development should be for the human being, this is for the whole of humanity and for each man and each group, and include integrally every human dimension such as economy, politic, culture and spirituality. Although the authentic development can be seen in diverse dimensions, the study conceptualizes human development as participant economy and strengthening of democracy according to the encyclical *Caritas in Veritate*. Furthermore the concept of integral human development need to be understood in the relations with not only human and society but the whole world of creature. In this sense, the integral human development extends to the integral ecology presented in *Laudato Si’* of Pope Francis.

On the basis of this framework, the study analyses Bishop Tji’s social actions in the dimensions of a participant economy, a strengthening of democracy, and ecology. First of all, Bishop Tji helped the poor be independent on their own and solve subjectively their problems through

the credit cooperative in the economic dimension. Secondly, even in spite of political oppression, he committed himself to common good and democracy in Korea, and his commitment contributed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Finally, he endeavoured to resolve the crisis of human beings today in relation with ecological standpoint, and the first practical ecological movement in Korea emerged under the auspices of Bishop Tji. In conclusion on this analysis, Bishop Tji was a pastor committed to the authentic development for all, and his social actions were a practice for the integral human development of Catholic Social Teaching.

\* **Key Words:** Bishop Tji Hak Soun, Catholic Social Teach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Integral ecology, Credit cooperative movement